

● 릴레이 인터뷰 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부 최호신 부장



이번 인터뷰 주인공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부 부장이자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부회장으로도 책임지고 있는 최호신 박사이다.

방사선분야 규제업무의 지휘자이기도 하면서 소속 기관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함에 따라 방사선안전 관리자이기도 한 최 박사는 1979년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석사과정 기간중에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안전관리실에 입소하게 되었고, 1981년 12월 원자력안전센터(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신) 발족과 함께 입사하여 지금까지 방사선분야 안전규제를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현재 최 박사 소속부서인 방사선안전규제부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사선원의 보안, 유통 관리, 방사능테러 예방,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따른 안전규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에 관한 안전규제 등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제반 안전규제활동과 방사선방호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및 방사선 관련 면허, 원자로 조종 면허 등 면허시험관리,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일반인 대상 교육 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최 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IERNet)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감시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향후 이 감시망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IERNet)은 우리나라의 전국도 환경방사선/능 준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37개 지역에 설치된 38개의 방사능측정포스트로부터 측정된 준위를 종합하여 실시간 인터넷으로 전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의 IERNet은 전국도의 환경방사선/능의 준위 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기에 북한의 핵실험 유무를 확인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 핵실험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우리 지역에 까지 확산되어 오고 그 양이 우리 측정시스템의 측정감도 이상이 되면 특별한 핵종의 경우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IERNet 망은 선진 외국에 비교할 때 충분하지 못하고 또한 인접국인 중국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어 IERNet의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핵과 관련하여 핵실험 유무를 감시하는 기능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향후에는 이에 대하여도 기능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간하는 '주간 원자력안전정보'를 통해 종종 방사선방호규제와 관련한 국가간 기술협정 소식을 접한바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들과 기술협정을 맺고 있는지요?

정부차원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기술협정을 맺고 있고, 특히 스웨덴 및 핀란드와는 방사성폐기물 분야 안전규제에 관하여 기술협력을 하기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스웨덴과는 방사선방호 및 방사능배출 분야에 대하여도 협력하기로 협정하였습니다. 그 외 인니, 베트남 등 동남아 인접 국가에는 원자력안전학교를 통한 원자력 기술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이용관련 인허가 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3,000개 기관을 넘어섰습니다. 다수의 인허가 기관을 규제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규제업무를 항상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가까운 시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이 빠른 효과를 기대하거나 강조하다 보니 의도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가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더 어려움을 들자면, 이 분야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외부의 공식 비공식 요구에 의해 그 동안 일관되지 않게 추진해 왔던 방향이 한 순간에 되돌려 질 때는 허무를 느끼기도 합니다.

20년을 넘게 규제업무를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몇 해 전 울산 소재 어느 비파괴검사 회사에서 방사선원 파손에 의한 주변 가옥과 도로의 방사성오염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교적 방사능량이 높은 밀봉선원 오염사고인터라 담당하던 종사자나 안전관리자께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비록 오염정도가 매우 낮기는 하였지만 그 오염이 주변 지역에 까지 널리 확산되어,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얻은 교훈 또한 대단히 컸습니다.

박사님께서 금년 협회에서 주관한 '2006년 방사선안전관리자모임'에서 방사선안전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도 해주시는 등 방사선안전관리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국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원자력 특히 방사선 society도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사선을 생각하고 안전을 강조하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힘을 합칠 때 방사선 society는 더욱 큰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작년도부터 착수한 "방사선원예방안전체계"는 지금 시작 시점이지만 이러한 과제를 활용하거나 지역 안전관리자 모임을 통해 방사선안전을 토론하며 방향을 잡아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게 방사선안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등 지역모임에 더욱 많은 안전관리자를 연결하면서 전국 모임으로 확대되어 나아가갈 때 우리나라의 방사선안전에 대한 시너지가 나타나리라 생각해봅니다.

여가생활로 산행을 즐겨한다는 그는 우리나라 지리산 한라산을 비롯한 국·도립공원 산을 모두 정복하고 이제는 백두대간을 마저 정복하는 길 만 남았다고 하며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호신 박사는 다음번 인터뷰 주자로 제주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자이며, 대학방사선안전관리자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송성준 박사를 추천하였습니다.